

 금융위원회	<div> <div>대한민국 대한환</div> <div>한국판뉴딜</div> </div>				<div> <div>내 삶을 바꾸는</div> <div>규제혁신</div> </div>
	<div> <div>보도</div> </div>	<div> <div>배포 시</div> </div>	<div> <div>배포</div> </div>	<div> <div>2022.3.2.(수)</div> </div>	

<div> <div>책 임 자</div> </div>	<div> <div>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</div> <div>이진수(02-2100-2990)</div> </div>	<div> <div>담 당 자</div> </div>	<div> <div>윤송이 사무관</div> <div>(02-2100-2983)</div> </div>
	<div> <div>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</div> <div>정용걸(02-3145-6770)</div> </div>		<div> <div>문재희 팀장</div> <div>(02-3145-6773)</div> </div>
	<div> <div>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장</div> <div>김준환(02-3145-7550)</div> </div>		<div> <div>이성희 팀장</div> <div>(02-3145-7552)</div> </div>
	<div> <div>금융감독원 상호금융국장</div> <div>권화중(02-3145-8070)</div> </div>		<div> <div>이건필 팀장</div> <div>(02-3145-8083)</div> </div>

제 목 : 상호저축은행, 여신전문금융업, 상호금융업의 리스크
관리를 위한 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」, 「여신전문금융업
감독규정」,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개정안 금융위 의결

< 개정안 주요 내용 >						
□ 제2금융권(상호저축은행, 여신금융전문업, 상호금융)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,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						
구 분			한도성 여신 미사용액		지급보증	
			현 행	개 선	현 행	개 선
상호저축은행			대손충당금 X	대손충당금 O	대손충당금 O	(좌 동)
여신 전문 금융	신용 카드	신용판매, 카드대출	대손충당금 O	(좌 동)	부동산PF 채무보증만	모든 지급보증에
	비카드	기타 한도성 여신			대손충당금 적립	대손충당금 적립
		한도성 여신	대손충당금 X	대손충당금 O		
상호금융					해당없음	

1 추진 배경

□ 지난 ‘21.4.29일 「가계부채 관리방안」을 통해 제2금융권의 한도성
여신과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여 위험관리를 체계화
하고, 업권간 일관성*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.

* 은행·보험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지급보증에 대해 충당금을 이미 적립 중

-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,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잔액, 지급 보증에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」, 「여신 전문금융업감독규정」,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.

2 주요 내용

①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

- **(현행)** 제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,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

* 은행, 보험업권은 대출 미사용금액 등에 대해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

- 여신전문금융업(이하 “여전사”)의 경우 신용카드사 비회원에 대한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음
- 상호저축은행, 상호금융업권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음

- **(개선)** 제2금융권의 건전성 강화, 업권간 규제차이 개선 등을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

※ 신용환산율은 은행, 보험업권과 동일하게 40%를 적용(신용판매, 카드대출도 50%에서 40%로 일괄 적용)

<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>

구 분			현 행	개 선	신용환산율 조정 일정
상호저축은행			X	○	(‘22) 20% → (‘23) 40%
여전사	신용카드	신용판매, 카드대출	○	(좌 동)	(현재 50%) → (‘23) 40%
		기타 한도성 여신 (비회원 신용대출 등)	X	○	(‘22) 20% → (‘23) 40%
	비카드	한도성 여신 (사업자 운영자금 대출 등)	X	○	(‘22) 20% → (‘23) 40%
상호금융			X	○	(‘22) 20% → (‘23) 30% → (‘24) 40%

②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

- **(현행)**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(이하 “부동산 PF”) 관련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,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*에는 관련 규제가 없어 규제차이 존재

※ 상호저축은행은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가 이미 있으며, 상호금융업권은 지급보증이 제한되어 있어 대손충당금 규제가 불필요함

- **(개선)** 규제형평 측면에서 여전사의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(신용환산율 100%)을 적립하도록 개선

< 제2금융권 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>

구 분		현 행	개 선
상호저축은행		○	(좌 동)
여전사	부동산 PF	○	(좌 동)
	부동산 PF 이외 (자회사 관련 지급보증 등)	X	○

3 향후 일정

-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」, 「여신 전문금융업감독규정」,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개정안은 **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**합니다.

- 다만,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단계적으로 **상향***하겠습니다.

* (상호저축은행·여전사) '22년 20% → '23년 40%
(상호금융) '22년 20% → '23년 30% → '24년 40%

- 또한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, 여전사, 상호금융의 **자본비율*** 산식에 금번에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이 반영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.

* (상호저축은행) BIS 비율, (여전사) 조정자기자본비율, (상호금융) 순자본비율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